

IMS만성통증 무료검진 1백30여명

지속적인 만성통증 치료 방안 검토



인강교수와 IMS만성통증전문과정 전문의들이 심층진단기구를 만성통증 환자를 시술하고 있다.

포천중문의과대학 대체의학대학원의 IMS만성통증 전문과정 무료검진이 지난 27일과 28일 중문의대에서 실시돼 만성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번 무료검진은 포천중문의과대

학교 차병원그룹 안 강, 이영진 교수 등 만성통증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진을 비롯해 IMS만성통증 전문과정 전문의들로 구성된 30여명의 의료진이 목, 어깨, 팔꿈치, 무릎의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노

장년층의 환자 1백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무료검진은 그동안 포천중문의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선단동과 포천동 주민들에 한해 시술하던 것을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주민까지 포함시켜 확대 실시했다.

강병수 선단동장은 "그동안 선착순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하던 방식과 병행, 만성통증에 고생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별해 진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문의대 흉골부 사무처장은 "시술을 받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검진대상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만성통증을 시술할 수 있는 방안을 포천시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더욱 많은 만성통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 인물

제53대 포천경찰서장 김영목 총경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 지지부진 문책인사



김영목 총경

김영목 총경(사진.58)이 지난 27일 제 53대 신임 포천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27일 부임한 신임 김영목 서장은 각 과장 및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과 접견을 갖고 관내현황 파악을 위해 지구대 및 특수파출소를 둘러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29일 가진 취임식에서 김영목 서장은 "누가 지적하는 수동적 업무 자세가 아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자발적 업무자세를 견지하고 조직원간 서로의 인화·단결 및 민원인에 대한 인권·인격 존중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 직원간 일치 단결된 직장분위기를 통해 업무추진에 있어 매사 친절·봉사로 포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행정구현을 당부"했다.

김 서장은 충남 대덕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거쳐 지난 1974년 4월 학사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인천부평서장, 부천중부서장, 경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이번 포천서장을 포함 7차례 리더관을 역임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포천 치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가족으로는 부인 신애자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주로 독서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일 전 포천경찰서장은 경기경찰청으로 지난 26일 대기발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대해 책임을 묻고 사전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쇠신 차원에서 포천경찰서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paek1031@freecall.com

동 정



경기도생활지도담당장학사와 연찬회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25일 연천군 수석원에서 경기도 생활지도담당장학사들과 연찬회를 갖고 노고를 치하했다.



화재예방홍보 활동 지시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22일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관내기관단체장과 수요회의 주재

윤정일 민주평등지문회의포천시협의회장은 24일 관내기관단체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간 업무협조 및 지역경기부양대책협의와 민주평등업무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오전 10시30분 포천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2004년 제3차 포천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상공회의소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특강 및 대화의 시간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22일부터 25일까지 5개 과목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 및 대화의 시간을 갖은 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화예술 활성화지원 세미나

김진동 포천예술회장은 25일 수원시 소재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한 '04-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사안을 논의했다.



제9회 영북노인대학졸업식

이동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지난 23일 영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제9회영북노인대학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이병업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25일 서울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강구하고자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2004년 안보교육 실시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23일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략전술을 해부한다'는 내용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군부대 환경교육

윤순옥 포천제21실천협의회장은 23일 포천환경교육장에서 일일환경교육을 신청한 7892부대원 50명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인간안보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이문환 포천시 가족·성상담센터소장은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주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04 인간안보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인터뷰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북부 영재 育成해야”

강사진과 학교시설 활용으로 효과적인 영재교육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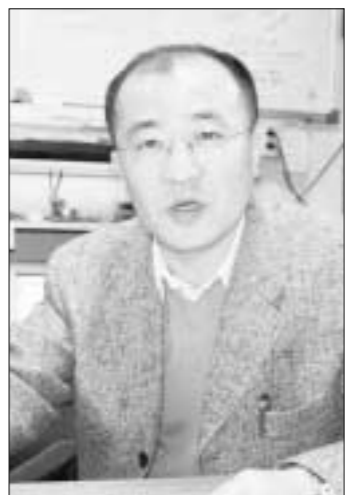
“2005년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전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경기북부지역과 서울 북부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채원석 원장(41.사진)은 대전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기초, 심화 학습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원대학교와 대전대학교가 200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채 원장은 “경기도와 포천시의 지원이 선행된다면 경기북부 지역만 국한해서 과학영재를 선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지역을 포함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 원장은 서울에 있는 우수한 과학 영재들 위주로 과학영재교육원이 운영될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채 원장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제와 심화/속진 주제, 개인별, 그룹별, 프로젝트형 mentor과제, 인성·소양교육, 연구소 탐방을 통한 현장교육 실시, 자연에서 과학을 배우는



개인적 대전대 과학영재교육원장

과학캠프 운영, 일일 과학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과학영재를 교육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지도강사는 대전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와 전임교수 및 초빙교수와 과학관련 교사 및 과학관련 단체 전문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교과과정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실시한다. 1학기에는 분광학과 여름학기로 나누며 분광학에는 매주 토요일 2시간씩 10회 출석 또는 cyber강의 20시간, 여름학기는 5박6일 집중교육 36시간을 교수식당과 기숙사를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2학기는 가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누며 가을학기는 토요일 2시간씩 20시간 강의이며 겨울학기는 5박6일 집중교육으로 36시간동안 교수식당과 기숙사를 활용해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해 나갈 채원석 교수는 외국어대학교 화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분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98년 대전대학교 전임강사로 출발해 현재는 부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능력이 좌우된다”

“살기 좋고 꼭 와보고 싶은 전원도시건설의 주체” 요구

오는 12월4일 이취임식을 통해 지난 6년간의 재경포천시민회장직을 마무리하는 정동화(사진) 재경포천시민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지난 98년부터 6년 동안 2대에 걸쳐 재경포천시민회장직을 수행해온 정 회장은 “재경포천시민회와 초창기에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지난 6년 동안 정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포천시민의 정신적 브레인 기구로서의 기능강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차기 회장선출은 “참여도와 공헌도, 자질(리더십) 등 3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심사숙고해 이문용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공무원 사회가 구속과 불륜 행각, 노조 문제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대해 정 회장은 “인물이 역사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밝히고 역사의 주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기 임원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재경포천시민회사는 항우회로서 친목, 정보교환, 고향에 대한 성원과 협조 등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며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40년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사회환원을 위해서 지난 98년2월9일 의식개혁협의회를 창립했다.

정 회장은 IMF로 국민적 실망감으로 고통을 겪



재경포천시민회장정동화

고 있을 때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국민인식을 고양시켜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역사의 흐름은 개혁이라고 강조하는 정 회장은 현 정부가 개혁정치를 추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방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사회는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가속기가 있는 반면, 브레이크가 있어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가속기이고 야당은 브레이크라고 보면 된다. 둘 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균형을 이루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 회장은 포천시민들에게 가장 살기 좋고 꼭 와보고 싶은 전원도시건설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재경포천시민회는 의식이 행동의 원천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담은 양사언 선생의 시조를 시민정신의 모토로 삼았다고 한다.

함께 시민정신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포천신문에 대해서 정 회장은 “깨끗한 신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며 “더욱 건전한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포천의 문화사업을 위해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비엔날레처럼 포천에도 내세울만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재경포천시민회는 언제나 든든한 항우회로서 존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 회장의 얼굴에서 포천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정동화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했으며 주요저서로는 『한국인의 사적 연구』 『민요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 『국어교육론(공저)』 『경기도 민요연구』 등이 있으며 재경포천시민회 제6, 7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종합고등학교 어머니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포천시거리 금강한의원 2층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 및 성금모금 행사를 가졌다.

차가워진 날씨속에 ‘따뜻한 온정’

포천종합고등학교 어머니회 ‘훈훈한 일일차집’

포천종합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김연)는 지난 25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포천시거리 금강한의원 2층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차집 및 성금모금 행사를 가졌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올해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포천종합고등학교 어머니회는 도 서관을 개관하면서 보람과 사의 일일선생님 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높은 교육효과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그간의 봉사활동으로 학교 및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연 포천종합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학부모의 수가 많아지고 열의도 높아지고 있으며 좋아지는 포천종합고등학교의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일일차집을 계기로 보다 나은 모습의 어머니회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일차집운영 수익금과 모금한 성금 전액은 학교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송우1리 경로당, 거리정화에 앞장



송우1리 노인정 회원들이 송우리 도로 주변의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송우리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들이 있다.

송우리 경로당(회장 김영숙)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주막가를 회원 20~30여명이 참여해 청소를 실시한다. 김영숙(76) 회장은 “평소 시내를

다녀보면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내 및 주막가가 깨끗해 졌다”며 거리정화에 대한 보람을 말했다. 이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사나흘씩 걸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회원들은 매달 1일과 15일에 송우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실시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로당 김영숙(78) 총무는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김옥자 주부명예기자

포천교총, 체육대회로 재충전

포천시 교원총연합회(회장 최규필, 포천초 교장)는 지난 24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포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개지구 51개 분회회원 450여명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교총지구대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규필 회장의 대회사와 박문국 포천시 교총의 축사, 포천교총의 김창식 부회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진 후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각 지구별로 축구와 긴줄넘기 등의 체육행사로 치러진 대회에서 축구는 송우지구, 긴줄넘기는 영북지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관내 교총지구는 총 4개로 ▶포천지구는 포천초, 왕방초, 신북초, 외북초, 청수초, 삼정초, 선단초, 청성초, 포천여중, 포천중, 삼성중, 포천중고, 포천고, 대전대, 교육청의 15개 분회 ▶송우지구는 송우초, 추산초, 축서초, 이곡초, 정교초, 유암초, 가산초, 내촌초, 갈월중, 경북중, 내촌중, 동남중, 동남고의 13개 분회 ▶영북지구는 영북초, 관인초, 중리초, 보강초, 영중초, 금주초, 영평초, 관인중, 영북중, 영중중, 관인고, 영북중고, 예절교육원의 13개 분회 ▶일동지구는 일동초, 운담초, 노곡초, 이동초, 도평초, 지현초, 화현초, 이동중, 일동중, 일동중고의 10개 분회로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장암교회, 무료검진 기회 마련

부천 참사랑메디컬 ‘기독교신우회’ 의료봉사 실시



지난 26일 이동장암교회에서 실시한 무료검진에 참여한 지역주민이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이동 장암교회(목사 정태영)는 지난 26일 지역주민 45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의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주민 및 교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마련된 무료검진에 부천시 참사랑 메디칼(원장 김화경)에서 의사 및 간호사 7명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참사랑 메디칼은 사내 ‘기독교신우회’를 중심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지방에 다니면서 건강검진 실시하고 있는 의료봉사모임이다. 이번 무료검진은 초음파를 이용한 심전도검사와 당뇨, 신장, 고혈

압 등으로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실시했다. 정태영 목사는 “교회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무료검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으로 무료검진을 받게된 방기철(49)씨는 “평소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검진을 받게 되니 기쁘다”며 지속적인 봉사를 당부했다.

한편 이동 장암교회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식사제공 및 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감자를 담가주기, 보일러 수리 등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